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19. 2. 7. / (총 2매)	담당부서	인구정책총괄과
과 장	배 경 택	전 화	044-202-3370
담 당 자	곽 동 순		044-202-3375

지역아동센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“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” 구성

-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, 4월말까지 운영 -
-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천막농성 잠정 중단하고 협의체에 참여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보건복지부,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“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”를 구성하여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(대표 남세도)는 지난 해 12월부터 광화문에서 진행 중이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 현실화 관련 천막 농성을 2월 7일 자로 중단할 예정이다.
- “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”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(대표 남세도),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(대표 옥경원), 한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(대표 박종규) 등 관련 단체 대표,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2월 둘째 주부터 4월말까지 매월 2회 격주로 개최한다.

- 협의체에서는 향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전방향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,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 예산 지원,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발전방안, 현장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보건복지부 배경택 인구정책총괄과장은 “지역아동센터는 기존 민간 공부방*을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로 명시한 2004년 법 개정을 계기로, 지역사회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”고 언급하면서,
 - * '80년대부터 빈곤밀집 지역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된 아동 복지를 위한 시설
- “이번 협의체 구성이 현 정부의 아동 돌봄 정책의 핵심 축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